



“소화기 사용은 이렇게”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초등학생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검사에 돈봉투·성접대... PD수첩 폭로 파문 확산

## 대검 “진상규명위 구성 엄정 조치”

경남지역의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지난 20일 밤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검찰 고위 간부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방송에서 정씨는 모 지검장, 대검찰청의 A부장을 2003년 여러 번 만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말에는 대검의 A부장 등 3명에게 술을 샀고 이 중 부장급 한 명에게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토크쇼 여종업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다.

정씨는 지난 1984년부터 20여년간 운동과 택시비, 전별금 등 다양한 돈을 검사들에게 줬다고 했다.

모 지검장 등 2명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씨는 녹음한 통화 내용과 함께 향응·접대 일시와 장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건을 제시해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21일 이번 의혹 파문과 관련, 8~9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규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제를 확립할 것을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2분 해질 19시 10분 달뜨기 12시 19분 달짐 01시 38분

**해상안개-선박주의!**  
아침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

지역	기온
광주	비온뒤 맑음 12/16℃
목포	비온뒤 맑음 10/15℃
여수	비온뒤 맑음 11/14℃
완도	비온뒤 맑음 11/15℃
구례	비온뒤 맑음 11/16℃
해남	비온뒤 맑음 11/15℃
장흥	비온뒤 맑음 11/15℃
고흥	비온뒤 맑음 11/15℃
순천	비온뒤 맑음 11/15℃
영광	비온뒤 맑음 10/14℃
진도	비온뒤 맑음 11/15℃
전주	비온뒤 맑음 10/15℃
남원	비온뒤 맑음 8/13℃
목성도	비온뒤 맑음 9/11℃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1.5~3.0m	☀️	보통	낮음
서해 북부 앞바다	북동~동풍 2.0~4.0m	☀️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2.0~4.0m	☀️	보통	낮음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동풍 2.0~4.0m	☀️	주의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8/16	5/20	5/21	10/17	10/18	8/20

# ‘열받은’ 광주

## 100년 동안 연 평균 기온 2.48℃ 상승 ... 전국평균 1.74℃보다 높아 조선대 류찬수 교수 논문 ... 2090년엔 겨울 사라지고 아건조기후로

광주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2.48도 상승해 전국 평균 기온 상승폭(1.74도)에 비해 0.7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국평균의 기온차인 0.74도 정도의 온도가 연평균 상승하는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30년이 필요하다.

광주의 기온 상승은 최저기온 상승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약 80일인 겨울이 2090년대가 되면 아예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류찬수 조선대 교수(과학교육학부)가 23~24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에서 열린 한국자료분석학회 2010년 춘계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광주시의

기후변화 경향 분석’ 논문에서 밝혀졌다.

류 교수는 이 논문에서 광주지방기상청의 최근 70년간(1940~2009) 기후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광주와 연평균 기온은 13.4도이고, 기온 상승률은 100년에 2.48도로 나타나 지구 및 우리나라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기온의 경우 100년 동안의 상승 폭이 무려 3.09도에 달해 일교차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해와 적은 해의 차이가 3배에 달하

고, 연평균 강수량의 격차는 무려 12배나 돼 수자원 관리와 가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연평균 습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건조지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00년 후에는 소나무 같은 수종이 사라지고 아열대 수종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수 교수는 “광주는 향후 건조지수가 높은 ‘아건조기후’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건조로 인한 물부족 사태나 도시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산업구조 개편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역대 법조비리 어떤 사건 있나

### 1997년 의정부지원 판사 15명 떡값 파문 1999년 대전 판·검사 등 300명 비리 연루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는 1997~98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 파문이 첫손에 꼽힌다.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인 1999년 1월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무려 300여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에게 사건 수입

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져 나왔다.

2006년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불린 사건에서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현직 경찰서장인 민오기 총경 등이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돼 실형 또는 징역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2005~2006년에는 브로커 윤삼림씨가 전직 검·경 고위 간부 등에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합뉴스

## 오늘 ‘지구의 날’ 나무 600그루 나눠주기

제4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초록세대, 지구 구하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22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수환경생태어린이집 원생들의 지구사랑 어린이 환경음악공연, 초록세대 광주선언 낭독 등의 순으로 열리며, 광주시청 정문에서는

나무 600그루 나눠주기 이벤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기후변화 및 내 집앞 마을 거꾸로 사진도 전시된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옛 도청 분수대에서 금강근린공원까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 순천대 총장 선거 5월 11일 ... 후보 7명 ‘물망’

순천대 총장 선거가 다음달 11일 치러진다.

순천대 총장 임용추진위원회는 “교육감 출마에 의해 지난달 10일 중도 사퇴한 장만재 총장의 사표가 최근 수리됨에 따라 후임 총장 선거를 다음달 11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거전에는 학내 인사 7명 가량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자천타천으로 김명수(물류학과)·문일식(화학공학과)·반봉찬(미래전략연구소장)·송영무(수학교육과)·양승렬(원예학전공)·임상규(웰빙자원학전공)·정진오(우주항공공학전공) 교수 등 7명이 후보로 거론

되고 있다. 새 총장은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무분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이번 총장선거부터 처음으로 ‘기탁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장 선거 임후보자는 2000만원의 기탁금을 학교 측에 내야 하며, 유효투표인수의 1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는 기탁금 전액을, 10~15%의 표를 얻은 후보는 기탁금의 절반인 1000만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 등록은 27~28일이며, 다음달 4~6일 공개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ga@

## ‘2010 광주 인권상’ 네팔 수실 파큐렐

네팔 인권운동가 수실 파큐렐(58·Sushil Pyakurel)씨가 21일 ‘2010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일부터 네팔·파키스탄·인도 등 아시

아 여러 나라의 민주·인권운동가 34명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절대 왕정에 맞서 민주·인권신장에 기여한 수실씨를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수실씨는 자국 내에 시민인권지원센터(INSEC)를 조직해 민주·인권운동은 물론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ANFREL)를 통해 국제적인 인권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과 금장메달·상장이 주어진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승덕고·보문고·광양제철고

###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 승덕고와 보문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전국 18개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자율

형 사립고는 지난해 지정된 송원고를 합해 4개교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일반고에 앞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모집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야 한다.

또 1~2년 단위로 학교 자체 평가를 하고 5년 단위로 교육청 평가를 해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Brain & Body**  
www.kls.or.kr

생활체육의 새로운 문화... (주)케이엘에스가 알려드립니다.

www.kls.or.kr

ALPHA Living Sports

KLS